

## 빅토리아대학교 4주 프로그램'

202024080 오진원

4주간 어학프로그램을 다녀왔다.

2023년 여름, 나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 빅토리아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 하나였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에세이에서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감상을 자세히 나누고자 한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떨리기만 하고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사귄수있을까? 라는 의문만 들었다

왜냐면 강원대는 따로 왔고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채 빅토리아에 도착했다

처음수업은 아무도 모르는 환경에서 들었고 되게 낯설고 그러기만했다

하지만 같은 한국인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는 브라질 친구,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온 일본 친구들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온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되게 많이 친해 졌을 때 쯤 헤어진다니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한국에 와서 일본친구들 그리고 한국친구들과 따로 만나기로 했으니 아쉽지만 괜찮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수업은 주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루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모두 전문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며, 그룹 활동을 통해 영어 실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을 권장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덕분에 나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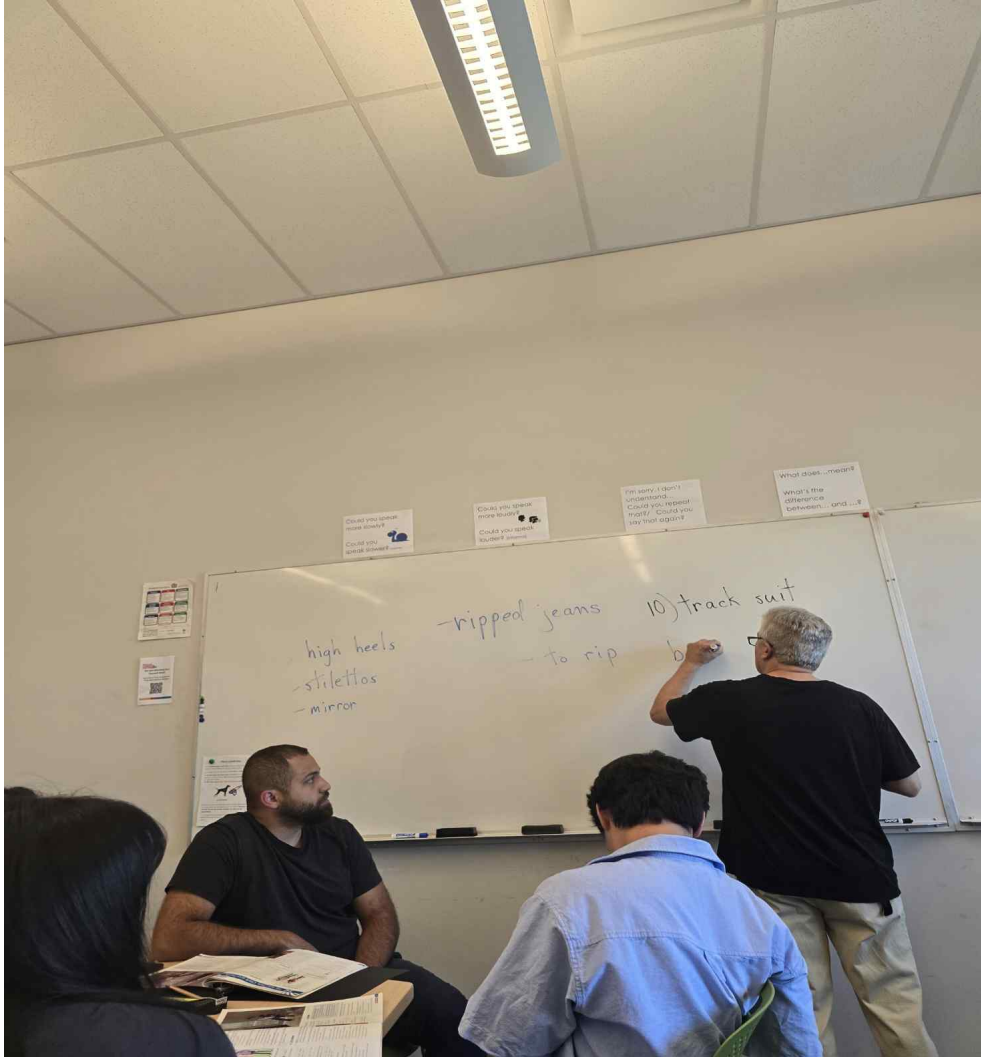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전 수업, 그리고 액티비티로 나누어진다

오전수업에는 두명의 선생님 한테 수업을 들었다

8시30~10~20 까지는 John선생님의 문법수업 그리고 10:40~12:30분까지는 peter선생님의 리스닝 수업이다

두분의 수업 방식은 한국의 수업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2명이 팀을 짜서 한명이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영상을 영어로 설명하고 한명이 영어로 설명해준 영상을 상상해서 말하는 그러한 수업방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생각의 범위를 넓혀 갈수 있게 끔 하는 수업 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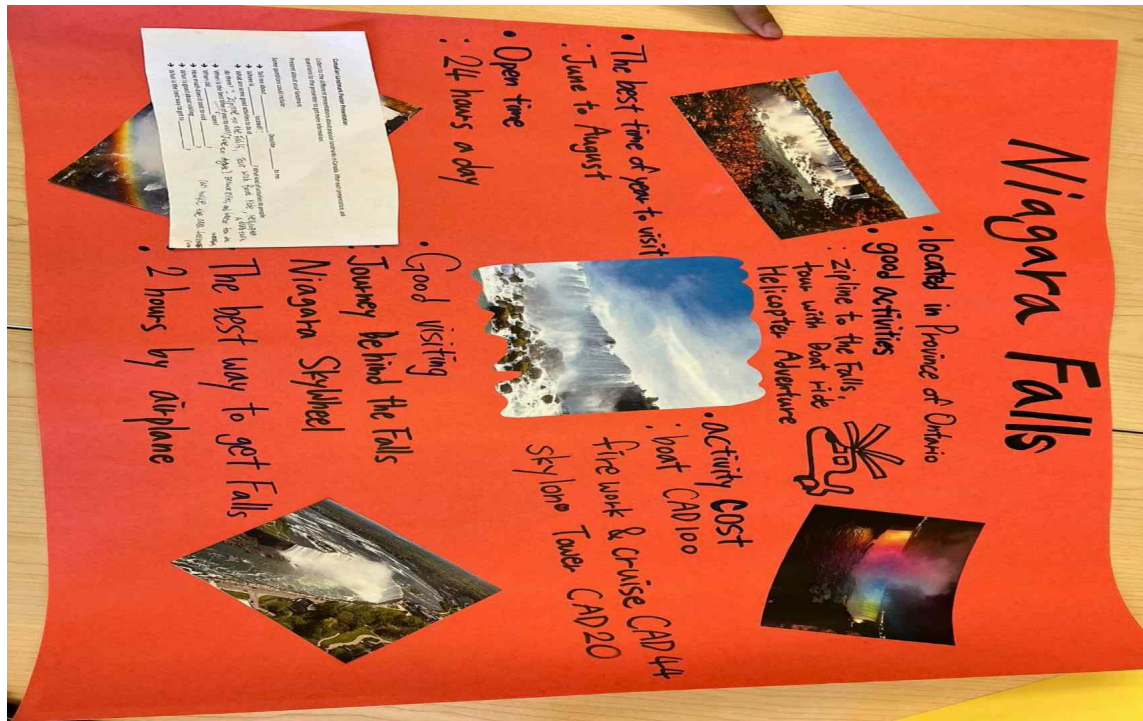


영어권에서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슬랭어 그리고 여러 중의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단어의 확실한 차이점을 알수 있게 돼서 좋았던거 같다

또한 이러한 수업에 보이다 싶이 여러 나라 사람들, 일본 브라질 등등 여러나라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다

고로 이러한 연수 동안 나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빅토리아 대학교에서는 여러 문화 교류 활동을 제공했는데,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현지 기숙사에서 생활 하며 캐나다 외국학교의 운영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캐나다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영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캐나다의 랜드마크 들을 조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 할 수 있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캐나다는 나라를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그것 말고도 여러 주제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스피킹 시험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자신감도 많이 안 생기고 떨렸지만 매주 금요일 마다 총 4번을 하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았다



또한 학교는 자연적이라서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슴과 토끼 다람쥐 도마뱀 등등 이러한 동물들이 철장안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서 너무 좋고 신기했다

서울 같은 이러한 삭막하고 숨 막히는 도시에서 벗어나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기분을 전환시키며 최고의 방학을 맞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매일 오후 마다 진행된 현장 학습과 관광 활동은 빅토리아의 명소를 탐방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특히, 나는 아름다운 부차트 가든(Butchart Gardens)을 방문했는데, 이곳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다.

또한 그 안에 직접 들어가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의사당과 왕립 브리티시 컬럼비아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 뿐 만이 아니라 여러 캐나다 현지 학생들이 어시스턴트가 되어 직접 추천하는 잘 알려지지않는 명소나 맛집도 추천해 주었고 되게 재미있었다

또한 추가요금을 내고 특별한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부차든 가든 벤쿠버 그리고 돌고래 보러가기 등등이 있다

나는 벤쿠버와 부차든가든 을 갔다왔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았다





부차트 가든을 방문하며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창의력이 결합된 결과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제니 부차트가 석회석 채석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다. 또한, 부차트 가든을 거닐며 느낀 평화로움과 여유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나는 정원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들과 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진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또한,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부차트 가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부차트 가든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한다. 부차트 가든은 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불꽃놀이는 정원의 중앙 호수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자리 잡고 앉아 기대에 차 있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첫 불꽃이 터지자, 모두가 감탄을 자아내며 박수를 보냈다. 첫 불꽃이 하늘을 밝히는 순간, 나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또한 불꽃놀이는 단순한 폭죽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다양한 색상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펼쳐지며, 각기 다른 모양과 패턴을 그렸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불꽃놀이는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터지는 불꽃들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 장관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특히,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연이어 터지는 불꽃들은 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 순간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동과 흥분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많은 액티비티와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던 것 같고 많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한 달간의 어학연수는 나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나의 언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의 한 달간의 어학연수는 나에게 있어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나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빅토리아 대학교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